**<전도자의 삶 –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?>**

**※ 욥1:20-22**

**[서론]**

(1)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.

- 한 마을을 선정하고, 한달 동안 집집마다 방문하여 매일 100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.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

①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이 상당히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.

- “왜 저 사람이 돈을 나누어 주지?”

② 2-3일이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.

③ 열흘, 보름이 지나면서부터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.

④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마을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.

-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.

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.

-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며, 당연히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.

(2) 여러분! 왜 감사가 없을까요?

- 많은 사람들이 “내 것”이라 생각합니다.

**2013년 7월 28일 – 주일 메시지**

① 내 수중에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.

-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,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.

② 어린아이(갓난아기)들을 봅시다.

- 손에 잡히면 놓지 않습니다.

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. (본능적으로)

③ 여기에 감사가 사라집니다.

(3) 오늘 본문에 “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” 했습니다.

- 모든 것이 하니님께로부터 왔습니다.

이것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

**[본론]**

1.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

(1) 혹시라도 불편함떄문에 불평이 일어나지는 않았나요?

① 사실,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.

②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좀 짜증이 날수도 있는 일입니다.

(2) 그런데 여러분!

참 신앙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.

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.

② “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!”

이렇게 되면, 여기에도 감사가 일어납니다.

2.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합니까?

- 사업 잘되게 해주셔서?

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?

건강하게 해 주셔서?

-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.

3. 그런데,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
- 오늘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참된 감사의 내용을 회복해야 합니다.

(1)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.

- 이 말은, 구원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.

① 인생 최고의 만남이 무엇 입니까?

- 물론 좋은 남편, 좋은 아내, 좋은 사업자로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어떤 분이 제게 하는 말, “목사님, 저 사람 못 만났으면 어쩔 뻔 했겠습니까?”

(좋은 아내를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)

② 그러나,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.

-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. 죄 때문에 (롬3:23)

③ 하지만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

(요14:6)

- 최고의 축복입니다.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.

(2)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해야합니다.

① 눅16장- 부자(물 한 방울 이라도)

②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어떤 소녀

- “엄마 너무너무 뜨거워요”

③ 어쩔 뻔 했습니까?

- 영원한 지옥 불속에서 허덕이는 내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. 그것도 영원토록 (10초만 불 속에 있어도 고통스럽습니다.)

(3) 사단의 손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.

①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?

- 영화, 드라마속에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.

②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.

③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. (엡2:3) – 여기서 빠져 나왔습니다.

**[결론]**

(1) 오늘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참된 감사를 회복합시다.

(2) 공수레 공수거가 인생입니다. (욥1:21)

- 하나도 내 것이 없다.

(3)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잇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.